

맞춤형복지로 복지 체감도 높인다

도, 40개 읍면동 허브화 추진 성과... 내년 100여 개 · 2018년도 241개 전체에서 추진 계획

군산에서 혼자 사는 박모(23세)씨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고 7개월째 아파트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최근 군입대 통지까지 받게 된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본인도 자살해 아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리비 체납 등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군산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박모씨를 방문상담하고, 경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무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면제 신청과 취업까지 연계했다.

자칫 본인이나 다른 사람까지 다칠 수 있었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이하 허브화)'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안착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복지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허브화 사업 추진 지역과 미 추진 지역의 복지사업 추진실적을 비교 조사한 결과, 사각지대 발굴은 4.8배, 방문상담은 5.3배, 각종 서비스 연계는 6.9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허브화 추진을 36개소 추진하면서 도와 각 시군이 협업을 통해 40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진행(목표비 111%)하는 성과를 보였다.

도는 내년에는 100여 개소, 2018년에는 241개 읍면동 전체에서 허브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허브화 추진 100여 개 읍면동에 방문 상담을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워치 '안전지킴이'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허브화 사업을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민간자원 연계,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우정청, 도시가스, 의사회,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허브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간담회(6회)를 진행하고, 각 시군과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유도했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동적, 단편적 복지서비스에서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박철웅 지역성보건의료장은 "앞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동절기에 주변에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민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독감 예방수칙 잘 지켜주세요

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전북도 질병관리본부는 8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게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 위생수칙과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

자, 생후 5~50개월 소아,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건소 및 병의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했다.

도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1세이상 9세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세인 고열(38°C), 인후통,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방문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대형 화재로 1,00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현장을 방문해 상인 및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10명의 부단체장과 7명의 시도사가 참여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대구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서문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발표문을 채택, 의결했다.

한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임시총회 참석에 앞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의 서문시장을 찾아 사고경위와 대책,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참여우' 실속형 축산물 베스트10 선정

전북 광역브랜드인 '참여우'가 실속형 축산물 베스트10에 선정됐다.

'실속형 축산물 Best10'은 전국에서 추천된 31개 브랜드에 대해 상품 품질과 경제성, 활용도 등을 고려해 지난 11월 25~26일, 2·3일 등 총 4일간에 걸쳐 소비자의 현장평가와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실속형 축산물 Best10'은 1인 가구 증가, 더치페이 문화 확산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과대포장 및 과소비 개선을 위한 소포장 실속형 축산물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5만원 이내의 다양한 '실속형 축산물 상품' 정보 제공과 선물세트를 선보여 올바른 선물문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 부문에서 소비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실속형 축산물 소비경진대회'를 통해 소비 위축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지역 안전수준, 전반적 개선돼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중 4개 분야 등급 상승

전북 지역의 안전수준이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안전처에서 공개한 '2016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자연재해 1등급, 화재·범죄·안전사고 분야 각각 2등급,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분야는 각각 3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중 4개 분야의 등급이 상승했다.

자연재해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했고, 화재 분야와 안전사고 분야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교통사고 분야와 감염병 분야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등급씩 상승했다.

또한 하위 수준을 의미하는 4등급이

나 5등급은 지난해 2개 분야(교통사고 4등급, 감염병 4등급)였으나 올해는 하나도 없으며, 7개 분야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아 우리 지역의 안전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는 전북만 유일하게 1등급 상승했다.

이와 같이 안전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은 도정 시책의 첫 번째로 '도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도민안전실 신설 이후 재난안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전북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 기자

내년 농어촌 체류형 공정수학여행으로 승부

도, 2017년 유치 목표 달성 위해 수학여행 세일즈콜 실시 · 색다른 지원사업 중점 홍보

전북도가 2017년 전북북부의 해를 맞아 36만명 수학여행단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성남시 등 경기지역 중학교 5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8·9일 이틀간 수학여행 세일즈콜을 실시한다.

이번 세일즈콜은 수학여행 콜센터 상담지도사들을 포함해 총 5개팀, 10명으로 구성했으며, 각 방문학교에 전달할 경기도 맞춤형 수학여행 코

스, 전북 관광안내책자, 지도를 같이 준비했다.

또한 전북도는 내년 전북북부의 해를 맞이해 공정수학여행 등 색다른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의 많은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용하고 농어촌관광 및 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학여행 방문단이 농어촌지역을 뿌리까지 체험하는 코스개발이 진행 중이

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농촌일손돕기나 체험을 하는 등 이른바, 공정무역에서 개념을 따온 '공정수학여행'으로 관광위주의 즐기지만 하는 수학여행을 탈피하고, 농촌 주민들과 공감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농촌을 깊숙이 체험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취지의 수학여행이다.

올해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찾아

가는 세일즈콜 실시와 사전답사 지원 등 전북도만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해 11월말 기준 2,850개교, 33만 2,168명이 전북을 방문해 당초 목표인 33만명 유치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북도는 울산지역 중학교,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경남 함양교육청 교장단 등을 대상으로 세일즈콜을 실시했으며,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의 연수단을 13차례 유치하여 전라북도 수학여행을 집중 홍보했다.

11월말 기준 전국 506개 학교가 콜센터를 통해 전북 수학여행에 관한 각종 안내를 받고, 전담지도사 지원, 공연체험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